

NOVEMBER 2022

뉴저지 초대교회

자녀를 위한 순예배

부모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소통 만들기

*Living a
life of prayer*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는 삶

열왕기하 18-20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열왕기하 19:16A)

FAMILY ACTIVITY "PRAYER L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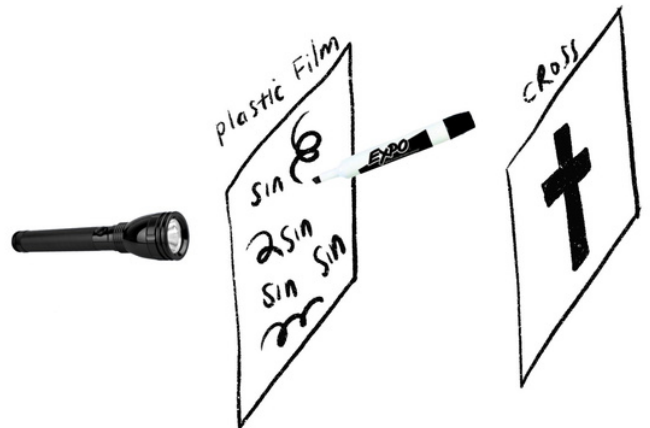
준비물: 플라스틱/비닐 필름 (바인더 페이지), **dryerase** 마커, 페이퍼 타월, 고무줄, 손전등, 십자가 그려진 종이

1. 먼저,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 지우개를 만듭니다. 페이퍼 타월 여분을 구겨서 동글게 뭉친후, 반듯한 페이퍼 타월로 뭉친 페이퍼 타월을 감싸 고무줄로 묶습니다. 페이퍼 타월 지우개 위에 '기도'라고 적어 줍니다
2. 2명 또는 3명의 도움으로 셋업을 만듭니다. 한 사람은 손전등을 잡고 왼쪽에, 또 한사람은 가운데에 플라스틱 필름을 들고, 또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에 십자가 그림을 들고 섭니다
3.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님의 빛, 플라스틱 필름은 우리의 마음, 십자가 그림은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4. 플라스틱 필름위에 각자의 죄, 연약함, 두려움등을 나누어본후 그것을 적도록 합니다. 이것들이 가득할 수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도, 우리는 나아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5. 그때 '기도'의 지우개를 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들이 지워지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나아갈 방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것을 나눕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우상숭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 구석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기도했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때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을때 그는 또다시 하나님앞에 무릎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셨고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결국 하나님앞에 죄를 짓고 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가운데 그의 아들 므낫세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깃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약하였으나 하나님께 의지할 줄 알았고, 완벽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간구할 때에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TALK

1. 어려움과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나요?
2.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하시고 자비를 보여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보아요
3. 우리에게 오늘 힘든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나누어보고 함께 기도해보아요

CONCLUSION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의 길을 쉽게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좇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완벽하거나 강건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두려워하였고, 병에 걸렸을 때에 통곡하여 울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였던 가장 위대한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았으며, 그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자비와 사랑으로 응답하셨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통로였고, 그가 겪었던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렌즈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무릎 꿇고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더이상 연약함이 아니며, 우리의 고통 또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연결해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이끌어줍니다.



ENDING PRAYER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교만한 부분들을 주님 발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움과 위기속에서 하나님 한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통하여 당신을 바라보며 찾으려 알아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가운데 우리를 가장 가까이 만나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